

#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인식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혜진<sup>1</sup>, 김진수<sup>2\*</sup>

<sup>1</sup>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창업학 박사수료, <sup>2</sup>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An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Characteristics to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Recognition

Hye-Jin Lee<sup>1</sup>, Jin-Soo Kim<sup>2\*</sup>

<sup>1</sup>Ph.D. Candidate, School of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sup>2</sup>Professor,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창업인식 형성에 기반하여 분석함으로써,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창업의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모형과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청소년 비즈쿨 캠프 참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559부의 설문지를 수집하고, SPSS 21.0과 Amos 22.0를 활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창업교육 전문성, 창업교육 차별성)이 인지된 실현가능성과 기업가정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인지된 실현가능성과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매개하여 창업의도를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 창업교육이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인식(인지된 실현가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업가정신)이 형성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증명한 것에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 청소년 창업교육, 비즈쿨, 인지된 실현가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Perceived Feasibility, Entrepreneurship,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 total of 559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BizCool Camp, were classified as SPSS 21.0 And Amos 22.0. As a result of the hypothesis test,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tise, Differentia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sitively affect Perceived Feasibility and Entrepreneurship, and Perceived Feasibility and Entrepreneurship increas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his study proves that Entrepreneurship Recognition should be formed in order for The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to be Startups.

**Key Words** :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Biz-Cool, Perceived Feasibil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Research Scholarship Grants in 2016.

\*Corresponding Author : Jin-Soo Kim(sunny@cau.ac.kr)

Received January 3, 2018

Accepted March 20, 2019

Revised February 1, 2019

Published March 28, 2019

## 1.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급격한 일자리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적 가치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1]. 이에 미래의 창업 주역이 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과 창업마인드 향상 교육을 통한 창의인재 육성에 전 세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5].

창업을 하기 위한 필요 지식과 기술, 기업가정신은 단기간에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소년기부터 창업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진로발달에 중요한 시기이므로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6]. 청소년 창업교육은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창업 지식 및 스킬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가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통해 향후 진로로 창업가를 선택하는 등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7,8].

청소년 창업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창업지식 및 스킬을 체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창업의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9-16].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어 단순히 창업교육 요인, 개인적 요인 등에 의하여 바로 창업의도가 향상되기보다는 창업교육을 통해 진로로서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심어졌을 때, 비로소 바람직한 창업의도가 향상될 수 있다[8,17].

이같이 청소년 창업의도에 창업인식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매개역할을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10-1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청소년의 진로특성을 감안한 창업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창업의도의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창업의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 2.1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내 청소년 창업교육은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청소년 창업교육 또는 기업가 정신

교육 등의 명칭으로 혼용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청소년 비즈쿨이 대표적이다. 청소년 비즈쿨은 창업과 기업가정신 교육 사업으로 초·중·고생에게 모의 창업교육을 통해 꿈, 끼, 도전정신, 진취성 등 기업가정신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18], 교과과정을 통한 이론적 지식 습득과 체험형 활동(비즈쿨 캠프 등)을 통한 실무체험으로 청소년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이다.

창업교육이란 미래 창업자를 위한 창업방법 및 계획, 절차 등을 가르치는 방법뿐 아니라 창업을 했을 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육과정을 뜻한다[19]. 창업교육의 목표는 창업을 하는 것만이 아닌 개인의 역량 및 기술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20]. 즉 창업교육은 예비 창업자가 창업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한 혁신창의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창업교육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경우 향후 창업시 기업 생존 가능성과 장기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고[21], 창업지식 습득으로 진로성숙도가 높아진다[8]. 종합해보자면, 청소년 창업교육은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인재로서 기업가정신 함양과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에 더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5,8,22].

창업교육 성과로 만족도 또는 창업의도 등을 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창업교육의 내·외부적인 인프라를 측정할 수 있는 창업교육 특성이다. 창업교육의 특성의 경우 주로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은 기존에 연구되고 있던 서비스 품질의 개념을 창업교육 분야에 적용시킨 것이다. 서비스 품질이란 소비자가 서비스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태도를 의미하며[23,24],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은 창업교육 분야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구체적 판단 및 태도로서 창업교육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창업교육 특성은 창업교육 전문강사·창업교육 전문성·창업교육 차별성·창업교육 운영[25], 강사품질·시설품질·교육품질[19], 교육요인·행정요인·복지요인·인적요인[26]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고, 결론적으로 창업교육 특성은 창업교육의 내·외부 환경적 측면

에 대하여 특성적으로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본 결과 특정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특성을 측정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19, 25, 2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 특성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창업교육인 비즈쿨 관련 연구 역시 비즈쿨 교육 특성을 창의지향성, 실무지향성(경험지향성), 다양성으로 구분하여 비즈쿨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이 창의적이며, 실무적인지, 교육생의 요구에 맞춘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지 측정하는 등 개인적 특성인 사회적 지지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나 구성 외에도 교육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연구가 미흡하다[27, 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내·외부 환경 측면을 모두 고려한 창업교육 특성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 2.2 창업인식

### 2.2.1 인지된 실현가능성

청소년 창업교육에서 청소년에게 창업가의 성공스토리를 들려주고, 성공 창업가와와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나도 노력하면 성공 창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 위함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사건(Entrepreneurial Event)모델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해당 모델에서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된 욕구(Perceived Desirability), 인지된 실현가능성(Perceived Feasibility), 행동 성향(Propensity to act)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29]. 인지된 욕구는 자신이 창업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주변인들이 인지하고 그에 대하여 스스로 매력을 느끼는 정도이며, 인지된 실현가능성은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성공 가능성을 느끼는 정도, 행동 성향은 창업을 결정하고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다[10, 11, 30]. 지각된 욕구, 지각된 실현가능성, 행동 성향은 창업의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30]. 즉, 교육을 통해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창업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있어야 하며, 성공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실제 창업을 하는 것은 학업의 문제와 진로 선택의 불안정성,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꾀하고, 스스로에게 창업 성공 가능성을 심어주는 것이 향후 창

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우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된 실현가능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지된 실현가능성은 창업의도와는 밀접한 영향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인다[10, 11, 30]. 그러나, 주로 인지된 실현가능성을 개인적 특성으로 보고 인지된 욕구와 행동 성향, 창업의도와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중요한 진로결정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즉, 인지된 실현가능성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면서 인식으로서 창업교육의 성과 중 하나인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이 창업에 대하여 긍정적 가능성을 인식하고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볼 수 있다.

### 2.2.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청소년기는 진로발달 단계에서 진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은 일반 교과과정과 더불어 진로교육을 함께 진행할 만큼[17], 청소년기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중요하다. 청소년은 일반적으로 진학, 취업, 창업 등을 향후 진로로 고려하게 된다. 이전에는 대부분 대학교 진학이나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하였으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평생직업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진로로 창업을 선택하거나 고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진로결정에는 개인의 내적변인인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과업 수행시 의도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신념이다[31]. 다시 말하자면,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Hackett & Betz(1981)은 Bandura의 연구를 바탕으로 진로분야에 적용하였고, 진로와 관련된 행동과 필요한 신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분야에 따라 구체적으로 달라지는데 진로관련 행동이라는 분야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3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적 요인, 경험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진로 관련 행동을 이끌고 결과에 대한 기대가 개인의 정서 및 인지에 영향을 미쳐 진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진로 만족을 이끌어 낸다

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다[33-36].

자기효능감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왔지만, 그에 비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주로 진로 및 직업 교육 등 교육학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창업교육에 적용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개인적 환경요인 및 개인적 특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37,3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지원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창업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할 때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났다고 하였다[39].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았을 때, 개인적 환경요인 및 특성, 교육적 요인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강화를 통한 창업교육의 개발 및 중요성이 제시된다. 또한 선행연구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의 창업에 대한 인식 요인으로서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창업교육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창업인식요인으로서 다른 변수들과 어떠한 영향관계를 갖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 2.2.3 기업가정신

창업교육에서는 창업스킬 습득 외에도 기업가정신 함양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청소년에게는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역시 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가치관과 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40].

창업교육 분야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기업가정신이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창조적 파괴 혁신활동을 이끄는 실행의 성향이며[41],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으로 자원을 재분배 및 결합하는 행동이다[42]. 기업가정신 요소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이 주로 언급된다.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43] 기업경영의 성과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44]. 또한, 창업가의 특성은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주며[45], 기업가정신교육 역시 기업가정신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6].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기업가정신은 창업 분야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변수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3 창업의도

창업교육의 궁극적 목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육을 통해 실제 창업으로 행동이 연결되는지 여부이다.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닌 향후 창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행동은 의도를 이해함으로써 설명 가능하다[47]. 이 의미는 특정 행위를 함에 있어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창업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창업의도는 창업에 대한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의도로서, 창업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또한, 창업과 관련된 행동과 전반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전제사항이며, 창업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창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11]. 종합하자면 창업의도는 향후 실제 창업을 하려는 개인의 의지로서 창업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선행요인이다. 창업프로그램 또는 정책은 개인의 역량 혹은 기술을 높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창업의도가 높을 때 결국 창업에 이르게 된다[14]. 창업교육 내용적 서비스품질과 상호작용적 서비스 품질, 개인적 특성 역시 예비창업자의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청소년 창업교육에서는 창업교육 요인(교육기법, 교육내용, 자기학습동기)과 창업자 개인 특성(성취욕구, 내적통제, 자기유능감, 개인네트워크)이 창업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실현가능성 등의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규범의 중요성 또한 창업의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즉, 창업의도는 종속변수로 주로 측정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의 성과이자, 창업과정에서 창업의도는 창업을 하기 위한 중요한 선행변수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모형 및 가설

###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창

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창업에 대하여 형성된 인식 요인인 인지된 실현가능성, 기업가정신에 의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도를 높이는 것을 제시하고 관련 영향관계를 검증한다. 연구 목적에 맞게 제시한 연구 모델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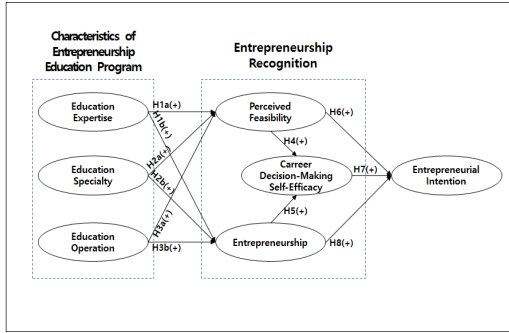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and Proposed Hypotheses

###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전문성, 차별성, 운영)을 독립변수로, 인지된 실현가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업가정신은 매개변수, 결과변수는 창업의도로 설정한다.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은 창업교육 전문성, 창업교육 차별성, 창업교육 운영으로 구성되며, 창업교육 전문성은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성이 실제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창업교육 차별성은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이 실무 적용할 만큼 타교육과 차별화 되는 정도”, 창업교육 운영은 “강의시설, 기자재활용, 교육환경 등 창업교육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정도”로 정의하고, 인지된 실현가능성은 “창업에 대하여 성공가능성을 인식하는 정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행동과 필요한 신념”,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혁신활동을 이끄는 실행의 성향”으로 정의한다.

### 3.3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과 인지된 실현가능성, 기업가정신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창업에 대한 이론적·실무적 전문지식 제공해야 하고, 기존의 경제교육 등과 비교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실습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

행되기 때문에 강의시설이나 실내 환경, 교육행정 등 환경적 측면도 고려해야한다. 즉, 창업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을 창업교육 전문강사, 창업교육 전문성, 창업교육 차별성, 창업교육 운영으로 구분하였는데, 창업교육 전문강사의 경우 자기효능감이나 기대 성취욕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 그 이유는 교육을 진행한 강사가 내부 강사가 아닌 외부강사였으며, 단기교육으로 진행되어 교육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쿨 캠프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쿨 전담교사가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단기교육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을 창업교육 전문강사를 제외한 나머지 창업교육 전문성, 창업교육 차별성, 창업교육 운영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창업교육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된 실현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0]. 그 이유는 창업교육의 만족도는 교육 콘텐츠의 구성과 교육 운영 등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인식 정도인데, 질 높은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고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교육생들은 긍정적 창업 인식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창업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더불어, 창업교육은 기업가 정신 함양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13]. 즉,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을 향상시키는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자면, 창업교육을 통해 인지된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이 인지된 실현가능성,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a : 창업교육 전문성은 인지된 실현가능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a : 창업교육 차별성은 인지된 실현가능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a : 창업교육 운영은 인지된 실현가능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b : 창업교육 전문성은 기업가정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b : 창업교육 차별성은 기업가정신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b : 창업교육 운영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4 인지된 실현가능성, 기업가정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청소년기에 진로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결정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높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잘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갖추므로써 상쇄될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필요 역량은 교육을 통하여 함양 가능하다. 청소년기의 중요한 성인은 진로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34]. 여기서 제시한 중요한 성인이란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에게 CEO특강 등을 통하여 롤모델을 제시해주고, 롤모델의 성장과정을 보며, 존경의 마음을 갖고 나아가 나도 저렇게 하면 롤모델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 즉, 스스로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느끼게 된다. 이는 인지된 실현가능성으로 창업을 하기 위한 선행요인이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요인이기도 하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인지된 실현가능성과 기업가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인지된 실현가능성과 기업가정신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4 : 인지된 실현가능성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기업가정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5 인지된 실현가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된 욕구(Perceived Desirability), 인지된 실현가능성(Perceived Feasibility), 행동 성향(Propensity to act)이 필요하며[29], 이는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0]. 선행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의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었으며[10,12], 이는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인지된 실현가능성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강화를 통하여 창업의도를 고양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은 학생에게 기업가정신과 기업가적 역량을 함양하게 도와주어 창업의도를 높게 한다[13].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인지된 실현가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6 : 인지된 실현가능성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6 자료 수집 및 측정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창업교육에 의한 청소년의 창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창업의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과 인지된 실현가능성과 기업가정신의 연관관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와의 연관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베이 기반의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통한 가설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7~8월 약 1개월간 청소년 비즈쿨 캠프에 참여한 전국 비즈쿨 학교 청소년(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중 부분적으로 무응답이거나 설문에 이상한 점이 불성실한 응답 25개를 제외한 559개의 설문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설문응답자의 표본 특성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 비즈쿨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고등학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Categories		Frequency	Ratio(%)
Total		559	100.0%
Grade	First Grade	201	36.0%
	Second Grade	269	48.1%
	Third Grade	89	15.9%
Gender	Male	241	43.1%
	Female	318	56.9%
Startup Club Activity	Yes	341	61.0%
	No	218	39.0%
Entrepreneurship Education Experience	Yes	375	67.1%
	No	184	32.9%

### 4.2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위하여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성 검증 및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분석 결과는 Table 2에서 제시하며, 7개의 잠재변수 중 Cronbach's Alpha 계수가 가장 적은 항목이 인지된 실현가능성으로 나타났는데, 0.774로서 권장사항보다 높아 신뢰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관련 요인들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하고자 AMOS 22.0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을 하였다. 적합도 검정 결과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 = 1.74$ , GFI = 0.915, AGFI = 0.897, CFI = 0.972, NFI = 0.937, RMSEA = 0.036).

Table 2. Result for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Construct	Item	AVG	STD	Factor Loading	Cronbach's Alpha	CR	AVE
Education Expertise	EE1	3.99	0.65	.745	0.893	0.934	0.738
	EE2			.776			
	EE3			.764			
	EE4			.780			
	EE5			.654			
Education Specialty	ES1	3.97	0.70	.775	0.911	0.946	0.815
	ES2			.777			
	ES3			.752			
	ES4			.718			
Education Operation	EO1	3.96	0.74	.686	0.849	0.900	0.818
	EO2			.653			
Perceived Feasibility	PEA1	3.19	0.70	.641	0.774	0.791	0.561
	PEA2			.669			
	PEA3			.704			
	PEA4			.740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SE1	3.76	0.65	.625	0.840	0.889	0.616
	ESE2			.719			
	ESE3			.720			
	ESE4			.661			
	ESE5			.807			
Entrepreneurship	Entre1	3.65	0.69	.648	0.916	0.982	0.948
	Entre2			.710			
	Entre3			.723			
	Entre4			.728			
	Entre5			.709			
	Entre6			.705			
	Entre7			.676			
	Entre8			.710			
	Entre9			.741			
Entrepreneurial Intention	EI1	3.75	0.73	.791	0.935	0.956	0.812
	EI2			.805			
	EI3			.788			
	EI4			.777			
	EI5			.713			

집중 타당성 분석 결과, 개념신뢰도가 가장 낮은 변수는 인지된 실현가능성으로서 0.791이 나왔으며, 평균분산 추출이 가장 낮은 변수 또한 인지된 실현가능성이 0.561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권장치 이상으로 결과가 도출되어 개념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 AVE 값의 제곱근이 종과 횡의 상관계수 값보다 높게 나타나 판별 타당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분산의 설명력은 39.6%로 나타나 공통방법편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통 요인 변수 미적용 모델의 모형적합도는  $\chi^2 = 906.79$  ( $df = 521$ ,  $p < 0.05$ )이고, GFI = 0.915, AGFI = 0.897, CFI = 0.972, NFI = 0.937, RMSEA = 0.036로 나타났다. 공통 요인 변수 적용 모델의 모형적합도는  $\chi^2 = 802.79$  ( $df = 486$ ,  $p < 0.05$ )이고, GFI = 0.924, AGFI = 0.901, CFI = 0.977, NFI = 0.944, RMSEA = 0.034으로서, 적용 전 보다 적합도가 좋아졌다. 또한,  $\Delta\chi^2$  값이 103.9로서 변화량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동일방법 요인 통제 후의 모형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이루어 볼 때, 공통방법편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sult for Discriminant Validity

Construct	1	2	3	4	5	6	7
Education Expertise	0.859						
Education Specialty	.672**	0.903					
Education Operation	.621**	.656**	0.904				
Perceived Feasibility	.356**	.369**	.309**	0.749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400**	.443**	.394**	.444**	0.785		
Entrepreneurship	.436**	.424**	.390**	.539**	.546**	0.974	
Entrepreneurial Intention	.563**	.506**	.467**	.442**	.515**	.576**	0.901

1) \*\* $p < 0.01$

### 4.3 구조모형 분석

측정 모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정 후,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활용하였다.

Table 4. Results for Fitness of SEM

	X2/df	GFI	AGFI	CFI	NFI	RMSEA
Results	2.033	0.901	0.885	0.957	0.919	0.043
Standard	<3	>0.9	>0.8	>0.9	>0.9	<0.06

다음으로 경로계수(β)를 통하여 연구 변수들간의 영향관계 및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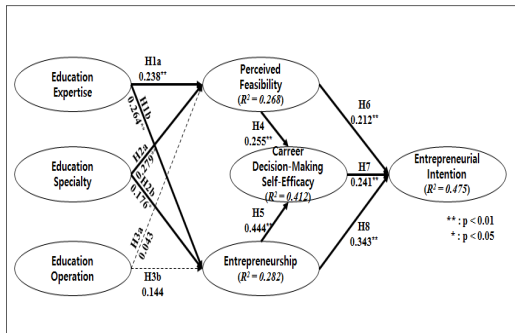


Fig. 2.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검증 결과, 대부분의 가설은 채택되었지만 창업교육 운영이 인지된 실현가능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3a)과 창업교육 운영이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H3b)은 유의수준 5%에서 기각되었다.

Table 5. Summary of Hypothesis Tests

	Path	Coefficient	Std error	t-value	Results
H1a	EE→PF	0.238	0.078	2.933**	Accept
H1b	EE→E	0.264	0.086	3.586**	Accept
H2a	ES→PF	0.279	0.069	3.236**	Accept
H2b	ES→E	0.176	0.076	2.276*	Accept
H3a	EO→PF	0.043	0.067	0.511	Reject
H3b	EO→E	0.144	0.074	1.876	Reject
H4	PF→CDMSE	0.255	0.076	3.945**	Accept
H5	E→CDMSE	0.444	0.06	7.073**	Accept
H6	PF→EI	0.212	0.078	3.604**	Accept
H7	CDMSE→EI	0.241	0.058	4.662**	Accept
H8	E→EI	0.343	0.064	5.808**	Accept

1) \*p<0.05, \*\*p<0.01

EE(Education Expertise), ES(Education Speciality), EO(Education Operation), PF(Perceived Feasibility), CDMSE(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E(Entrepreneurship), EI(Entrepreneurial Intention)

#### 4.4 연구결과 논의

실증분석 결과 청소년의 창업인식은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 중 창업교육 운영은 창업교육 전문성, 창업교육 차별성에 비하여 인지된 실현가능성과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창업교육의 성과변수인 창업의도의 향상은 결국 청소년의 창업인식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며, 창업교육 내용적 측면이 교육 지원 측면인 운영측면보다 중요한 부분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전문성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긍정적 창업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개발 및 배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창업교육 전문성, 창업교육 차별성, 그리고 창업교육 운영)이 청소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청소년의 창업인식(인지된 실현가능성,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기업가정신) 형성이 매개할 것으로 판단하고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 중 창업교육 전문성과 창업교육 차별성은 인지된 실현 가능성과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매개하여 창업의도를 높이는 요인임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창업과 관련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증명한 것에 의미를 가진다.

이론적 측면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 특성 중 창업교육 전문성과 창업교육 차별성과 같이 창업교육의 교육 내용과 관련된 요인들이 청소년의 창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향후 청소년 창업관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에 있어 청소년의 긍정적 창업인식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적 측면에서 다수의 청소년이 향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긍정적 창업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외부적인 특성을 고려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해주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반적으로 성과가 높은 수준에 속하는 청소년 비즈쿨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 창업교육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향후 연구에서 일반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 개인 수준의 측정 전환시 개인의 성격, 특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과 창업 교육간 관련성 등을 제시한다면 더욱 풍부한 시사점을 지닐 것으로 판단된다.

## REFERENCES

- [1] S. W. Kim, Y. H. Kim, J. W. Lee & H. N. SON. (2017). The Significance and Direction of Entrepreneurship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TEPI Insight*, 218, 1-36.
- [2] J. A. Katz. (2003). The chronology and intellectual trajectory of Americ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1876 -1999.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2), 283-300.
- [3] D. Kuratko. (2005). The emerg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Development, trends, and challenges.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29(5), 20.
- [4] W. E. F. Torrance. (2013). Entrepreneurial Campuses: Action, Impact, and Lessons Learned from the Kauffman Campuses Initiative.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Research Paper*.
- [5] N. Duval-Couetil & Z. Long. (2014). Career impa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How and when students intend to utilize entrepreneurship in their professional lives. *Journal of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26(1), 63-87.
- [6] M. R. Kim & S. J. Han. (2018). The effects of personal, social factors, and school career experience on high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9), 399-405.
- [7] A. Agung, A. Mukhadis, E. Sutadji & P. Purnomo. (2018). Entrepreneurship Intent on Vocational High School Education: The growth of new Entrepreneurs in Indonesia.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onesian Technical Vocational Education and Association (APTEKINDO 2018)*. Atlantis Press.
- [8] H. J. Lee, I. H. Hwang & J. S. Kim. (2016).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to the Career Maturit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698-709.
- [9] I. C. Yoon. (2017). Effect on startup mentoring, education satisfaction, and startup inten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265-273.
- [10] H. S. Lee & M. J. Baek. (2012). Individu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Subjective Norm. *Advancing Small Enterprise Innovation Research*, 15(2), 65-84.
- [11] M. G. Choi & E. J. Park. (2012). A Study on The Effects of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Undergraduate Students in Culture·Tourism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ourism&Leisure Research*, 24(5), 201-220.
- [12] M. S. Kim & Y. G. Kim. (2012).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5(4), 61-84.
- [13] D. H. Kim, S. Y. Jung & W. J. Lee. (2018).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Juveniles on Entrepreneurship, Creativity Competency,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7), 371-391.
- [14] N. E. Peterman & J. Kennedy. (2003). Enterprise education: Influencing students' perceptions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2), 129-144.
- [15] W. I. Lee, K. H. Jang & K. C. Yoon. (2017). The Effects of University Entrepreneurial Education Service Quality and Characteristics of Preliminary Founder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view*, 20(5), 41-52.
- [16] Y. W. Jung & S. S. Ban. (2008). A Study on the Teenage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3(1), 45-67.
- [17] S. J. Nam. (2011). A Study on Evaluation of Career Education and Relations between Career Education and Career Competenc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31(5), 123-143.
- [18] *K-Startup*, <https://www.k-startup.go.kr>
- [19] S. G. Na. (2016). A Study on the Structural Causality Relationship among the Service Quality, Satisfaction, Reliability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of Education for Start-ups of Small Enterprises. *Business Education Review*, 31(5), 123-143.

- [20] J. H. Lee. (2013). A Study on the Ways to Vitalize Students' Entrepreneurship.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8(2), 63-74.
- [21] N. Elert, F. W. Andersson & K. Wennberg. (2015).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high school on long-term entrepreneurial performance.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111, 209-223.
- [22] H. S. Oh & M. Y. Im. (2014). A Study on Measures to Nurture Young Entrepreneurs and Promote Business Startups(14-R17), *Korea: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23] D. A. Garvin & W. D. P. Quality. (1984). Really Mean. *Sloan management review*, 25.
- [24] A. Parasuraman, V. A. Zeithaml & L. L. Berry. (1998). Alternative scales for measuring service quality: a comparative assessment based on psychometric and diagnostic criteria. *Handbuch Dienstleistungsmanagement*, 449-482.
- [25] J. I. Kim & I. H. Lee. (2014). The Impact of Service quality in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the Self-efficacy, the Achievement need and the Satisfaction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Focusing on the Entrepreneurial Education of Internet Shopping Mal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5), 21-31.
- [26] Y. R. Jung & S. B. Cha. (2008). The Impact of Service Quality in Higher Education on Students' Satisfaction and Loyalty: A Case Study of Tourism-Related Graduate School. *Tourism Study*, 23(2), 139-155.
- [27] C. A. Nam, I. S. Go & H. Y. Jang. (2013). A Study of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Bizcool Education, Social Support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Environment on the Learning Outcome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27(1), 1-30.
- [28] J. W. Park & J. I. Choi. (2015). The effect of Bizcool's educational characteristics on development of Youth creativity: Focused on the High-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Resources Development*, 18(3), 47-75.
- [29] A. Shapero & L. Sokol. (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72-90.
- [30] N. F. Krueger Jr, M. D. Reilly & A. L. Carsrud. (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31] A. Bandura. (1986). Fearful expectations and avoidant actions as coeffects of perceived self-inefficacy. *American Psychologist*, 41(12), 1389-1391.
- [32] G. Hackett & N. E. Betz.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33] S. Y. Ha. (2018).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Adaptability Mediated b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Korean College Students. *Global Creative Leader*, 8(1), 97-119.
- [34] R. W. Lent, S. D. Brown & G. Hackett.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1), 79-122.
- [35] R. W. Lent, M. J. Miller, P. E. Smith, B. A. Wat ford, K. Hui & R. H. Lim. (2015). Social cognitive model of adjustment to engineering majors: Longitudinal test across gender and race/ethnicit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6, 77-85.
- [36] C. Hou, L. Wu & Z. Liu. (2014). Effect of proactive personality and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adaptability among Chinese graduate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2(6), 903-912.
- [37] K. H. Jung & C. S. Sung. (2016).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49-57.
- [38] M. S. Park & J. W. Park. (2018). In the Fusion Era of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Perfectionism and Career Indecision :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1), 79-87.
- [39] M. S. Kim & Y. G. Kim. (2012).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5(4), 61-84.
- [40] P. F. Drucker. (1985). The discipline of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63(3), 67-72.
- [41] J. A. Schumpeter. (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31(196), 791-795.
- [42] D. Miller. (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791.
- [43] Y. M. Baek. (2018).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on

- Employability of the College Student-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2), 113-120.
- [44] S. A. Zahra. (1991). Predictors and financial outcomes of corporate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6, 258-282.
- [45] J. S. Kim, M. G. Choi & C. S. Sung. (2011). A Study on the Effects of Senior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the Entrepreneurship,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4), 1833-1843.
- [46] D. H. Kim, S. Y. Jung & W. J. Lee. (2018).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Juveniles on Entrepreneurship, Creativity Competency,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7), 371-391.
- [47] I. Ajzen.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이 혜 진(Lee, Hye Jin) [정회원]



- 2012년 8월 :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 2015년 2월 : 중앙대학교 산업창업 경영대학원(창업학석사)
- 2018년 6월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창업학과(창업학박사 수료)

- 2012년 3월 ~ 현재 : (사)한국창업경영연구원 연구원
- 2014년 10월 ~ 현재 : (사)한국창업교육협의회 간사
- 관심분야 : ICT 융합, 기업가정신, 창업, 창업교육 등
- E-Mail : crujin@naver.com

김 진 수(Kim, Jin Soo) [정회원]



- 1982년 2월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응용통계학과(경제학사)
- 1986년 8월 : 텍사스 주립대학 MBA (경영학석사)
- 1990년 12월 : 루이지애나 주립대학(LSU) (경영학박사)

- 1995년 3월 ~ 현재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ICT 융합 및 서비스전략, 비즈니스 모델, 빅데이터, 기업가정신과 혁신, 벤처기술창업 등
- E-Mail : sunny@cau.ac.kr